

2월 1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1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보험권 혼조.. 주택지원안 기대→급반등 [다우: 7932.76 (-0.09%)	12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보험권 혼조세로 마침.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금융구제안이 최악의 경기후퇴(recession)를 방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부각되면서 장중 250포인트 이상 추락했던 다우 지수는 정부가 주택시장 지원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장 마감을 한 시간 남짓 남겨두고 급반등. 한편 이날 1월 소매판매가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깊어진 경기후퇴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고공행진을 지속, 고용시장이 여전히 침체 일로에 있음을 확인.
美정부, 주택지원안 구체화.. 표준 테스트 마련	이날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주택차압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관계자를 인용, 보도. 관계자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정부는 모기지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보유자들을 위해 표준화된 상환 능력 재평가 및 적격성 테스트를 마련해 테스트를 통과한 모기지 채무자들의 상환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
소매판매 7개월 만에 첫 증가	미국 상무부는 1월 소매판매(계절조정)가 전월 대비 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7개월 만에 첫 증가세로 앞서 지난해 12월까지 소매판매는 6개월 연속 줄어 역사상 가장 긴 감소세를 지속했었음. 1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와 비교해서는 9.7% 급감. 휘발유 가격 상승이 소매판매 개선의 주요 배경.
신규실업수당청구 62만 건..	미국의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대비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7일 마감 기준)가 전주대비 8,000명(계절조정) 감소한 62만3,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61만 명은 넘어선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84% 많은 수준. 추세를 잘 보여주는 4주 평균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만4,000명 증가한 60만 7,500명을 기록. 이는 지난 1982년 11월 이후 27년 만에 최고치.
국제유가 5% 급락.. 주요부진 우려로 33弗 마감 [WTI: \$33.98 (-\$1.96)	국제유가가 경기우려감으로 5% 넘게 급락하며 배럴당 33달러 선까지 밀림. 이 같은 마감가는 작년 12월19일 이후 2개월래 최저치. 미 의회가 7,8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단일안을 마련하고, 금융권 지원 프로그램인 '금융안정계획'도 발표했지만 기대치에 미흡하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침. 또 미국의 1월 소매판매가 예상 밖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세 지속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고, 주간 실업수당 지표마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경기위축에 따른 유가수요 위축 우려감이 불거짐.

제목	주요 내용
유럽 증시,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유럽 주요 증시는 12일 미국 소매판매 실적의 예상 외 반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 위축과 주요 기업들의 우울한 실적 전망이 악재로 작용, 일제 하락세. 이날 증시는 미국의 1월 소매판매 실적이 전월에 비해 1.0% 증가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으나 실제 주가 견인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인 고용 불안정 우려와 미국의 구제금융안에 대한 실망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
佛 4분기 성장률 30년來 최악	프랑스는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1.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통계청인 INSEE가 12일 밝힘. 이런 성장률은 1978년 이후 30년 만에 최악의 부진을 보인 것이라고 INSEE는 전함.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은 이와 관련, 올해 1분기 프랑스 경제는 마이너스 0.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한편, 스페인도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1%의 성장률을 기록해 15년 만에 최악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
中, 1월 통화공급 증가율 18.8%..예상 상회	국의 1월 광의의 통화공급량(M2) 증가율이 시장 예측치인 18.4%를 웃돈 18.8%로 집계됐다고 인민은행이 12일 발표. 직전월인 작년 12월 증가율인 17.8%보다도 높은 수준. 이 기간 신규 위안화 대출은 모두 1조 6천200억 위안으로 직전월 대비 7천718억위안과 전년대비 8천36억 위안보다 크게 늘음. 신규 위안화 대출은 작년 한 해 동안 4조9천100억 위안으로 집계돼 2007년 3조6천300억 위안보다 35.3% 증가.
수출中企 대출 100% 보증해준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 보증 34조원 전액을 만기 연장하기로 합의. 이와 함께 기업별 보증한도를 늘리고 요건을 완화해 올해 신규 보증규모를 작년보다 18조원 늘림. 이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로 보증을 늘리려는 의도로 파악.
한은 기준금리 0.5%p 인하..2.0%로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0월부터 내리기 시작해 지금까지 4개월 만에 모두 3.25%포인트 낮추게 됨. 기준금리 2.00%는 사상 최저 수준.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가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는 경제현실을 반영함. 중견.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경기는 언제 한국경제에 위기를 몰고 올지 모를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도 역시 감안.
자영업자 2개월새 42만명 도산. 폐업	1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자영업주(자영업자) 수는 558만7천명으로 2개월 전인 지난해 11월의 600만3천명에 비해 41만6천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 이는 순감소된 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창업한 인원을 감안하면 도산. 폐업한 인원은 42만 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8월 604만 명, 9월 606만 명, 10월 604만 명, 11월 600만 명을 기록한 뒤 12월에 578만 명으로 급락했으며 1월에도 20만 명 가까운 감소세를 기록했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